

# -아지다

어떠한 행위를 하게 되거나 어떠한 상태로 됨을 나타내는 표현. 어미 '-아'와 동사 '지다'가 함께 쓰인 표현

**[분류]** 표현 **[형태 정보]** -아지다, -어지다, -여지다 ◇-아지다: 동사나 형용사 어간의 끝 음절 모음이 'ㄱ, ㄴ'인 경우에 사용한다. **[예]** 찾아지다, 좋아지다 ◇-어지다: 동사나 형용사 어간의 끝 음절 모음이 'ㄱ, ㄴ'이 아닌 경우에 사용한다. **[예]** 주어지다, 예뻐지다 ◇-여지다: '하다'에 사용하는데, 줄어든 형태 '해지다'로만 쓰인다. **[예]** 착해지다, 피곤해지다 **[가표제어]** -어지다, -여지다

## 용법

1. **【동사에 붙어】** 어떠한 행위를 하게 되거나 어떤 동작이 저절로 일어나 그러한 상태로 됨을 나타낸다.
  - ① 그는 침대에 벌렁 나뒹굴**어졌다**.
  - ② 그 자전거는 페달을 밟지 않아도 잘 가**졌다**.
  - ③ 접시가 깨**어졌다**.
  - ④ 반이 둘로 나뉘**어졌다**.
  - ⑤ 그에게서 사랑이 느껴**진다**.
- ①은 어떤 다른 힘에 의해 혹은 저절로 침대에 나뒹구는 행위를 하거나 그런 상태가 되었음을

나타내고, ②는 자전거가 저절로 잘 움직임을 나타낸다. ③은 접시를 깨는 행위를 통해서 혹은 손에서 미끄러진다거나 해서 의지와 상관없이 깨진 상태가 되었음을 나타내고, ④는 누군가에 의해서나 혹은 저절로 반이 둘로 나뉜 상태가 됨을 나타내며, ⑤는 그의 어떠한 행위나 표정, 표현에 의해 사랑을 느끼게 됨을 나타낸다.

## 2. 【형용사에 붙어】 점점 어떤 상태로 되어 감을 나타낸다.

① 철수는 술을 먹자 얼굴이 벌게졌다.

② 미영이가 많이 예뻐졌다.

③ 요즘 낮이 점점 길어진다.

④ 그 못된 철수가 크면서 많이 착해졌어.

①은 술을 먹어서 얼굴빛이 점점 벌건 상태로 변화됨을, ②는 미영이의 얼굴이 예쁘게 변함을, ③은 낮의 길이가 점점 길게 바뀜을, ④는 철수가 전보다 많이 착한 사람으로 변화됨을 나타낸다.